

朝鮮朝 最後의 圖書署員

—小琳 趙錫晉論—

李 慶 成

I

小琳 趙錫晉하면 心田 安中植과 더불어 朝鮮朝와 近代에 걸친 교량적인 存在의 雙璧이다. 더구나 心田보다도 나이가 年上이고 공식적으로는 朝鮮朝의 最後의 圖書署員이라는 格式에도 불구하고 美術史上에는 늘 그늘진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앞에서 이야기한 圖書署員이라는 주어진 資格과 朝鮮朝末의 畫家 琳田 趙廷奎의 孫子라는 家門으로 보거나 어엿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心田에게 늘 눌리우고 있는 것은 일종의 不可思議한 일이다.

진하는 말에 의하면 小琳은 몹씨 性品이 겸손하고 개성이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와 같은 無抵抗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 人生的 태도가 心田의 원만한 德望에 비해서 늘 그늘지고 그 그늘로 하여금 小琳의 예술적인 성과마저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추측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無抵抗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人間的인 자세가 드디어 人間으로서의 信望을 상실케 하고 그 信望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그의 藝術의 評價에까지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II

趙錫晉은 字는 應三¹⁾이요 號는 小琳이고 琳田 趙廷奎²⁾의 孫子이다. 小琳이 태어난 것은 1853년(哲宗 4年癸丑) 黃海道 瓮津郡 興峨面에서였다.

小琳의 부친은 趙鏞燦(1822~ ?)으로서 琳田의 次男이며 父親을 따라 農事를 지으면서 隱遁生活을 하였다. 어머니는 文義 朴氏로 兄 錫泰와 小琳을 낳았으나 일찌기 作故하였다.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 小琳은 後嗣가 없는 親戚 趙性完宅에 養子로 들어 갔다.

養父인 趙性完(1835~ ?)은 通洲大夫 行惠民署 主簿를



小琳 趙錫晉 肖像

* 1) 靑丘 2卷 2號 page 42 參照

2) 趙廷奎 (1791~) 字 聖瑞 號 琳田檀園의 畫法으로 山水, 魚蟹 등에 能하였음.

지냈으며 後嗣가 없는 關係로 全州李氏(1830~ ?)를 비롯하여 陽州許氏, 全州李氏(1850~ ?)와 結婚하기에 이른다. 小琳은 마지막 養母인 李高淑과 함께 居住하였다.

小琳의 夫人 德水李氏(名 淸惠 1854~1939)는 黃海道 海州 上林에서 生長, 그곳에서 小琳과 結婚하였다. 李氏는 天性이 매우 날카로왔으나 每事에 仔詳하고 記憶力이 좋아서 小琳이 그림에 餘念이 없을 때에는 夫人이 대신 모든 일을 處理해 내곤 했다.³⁾

小琳은 일찍이 父親을 여의고 祖父 琳田에게서 家學을 傳授받아 書畫에의 길을 텠다. 號를 小琳이라고 지은 것도 작은 琳田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長成하여 琳田門下를 떠나 吾園 張承業에게 師事하여 그의 首弟子가 되었다. 吾園 張承業은 小琳보다 10년이 年上이라고 傳하는데, 小琳은 心田과 더불어 吾園을 스승으로 극진히 모시고 그의 藝術의 精粹를 흡수하는 데 급급하였다.

이 무렵 性格이 호탕한 吾園이 작품을 하다말고 行方不明이 되면 心田과 小琳이 그 뒤끝을 끝맺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이렇게 해서 心田과 小琳은 스승인 吾園의 畫格을 完全히 자기 것으로 하였는데 心田이 약간의 主觀의인 變貌를 하였다면 小琳은 本格的으로 吾園의 正道를 뒤따랐다.

1869년 7월 小琳은 畫員 最高의 榮譽인 御用畫師가 되어 高宗皇帝의 御眞을 描寫하여 마침내 그 功으로 永春郡守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高宗 6年 12월에 高宗皇帝 및 李王殿下의 御眞圖監으로 正三品에 올랐다.

1881년 그의 나이 28歲때 心田 安中植과 더불어 天津 유학을 한바 있는데,⁴⁾ 이때의 目的은 新武器 製造法과 조련법을 배우기 위해 淸으로 간 100명에 끼어 製圖士의 일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中國 유학을 계기삼아 그는 그곳의 墨客과 交遊하고 山水, 人物, 花鳥 등 모든 것에 통달하는 기초적인 作業을 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그가 到達한 作品의 世界는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各體에 能通하고 그 畫風이 端雅하고 逸趣⁵⁾가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藝術家의 部類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傳統에 서서 그 傳統의 主流를 되도록 主觀을 억제하면서 자기 藝術을 추진하는 형이고 또 하나는 傳統에 立脚하되 최대한으로 個性을 발휘하여 獨創을 指向하는 형이 있다. 그렇게 보면 小琳은 主流에 서서 어디까지나 正道를 걸어 온 部類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08년에는 工業傳習所 촉탁으로 陶磁器에 山水畫를 그리는 作業을 맡아 그의 遺品이 많이 남아 있다.

1911년에는 後進養成을 위해서 창립된 書畫美術院에서 心田과 더불어 主導의 役割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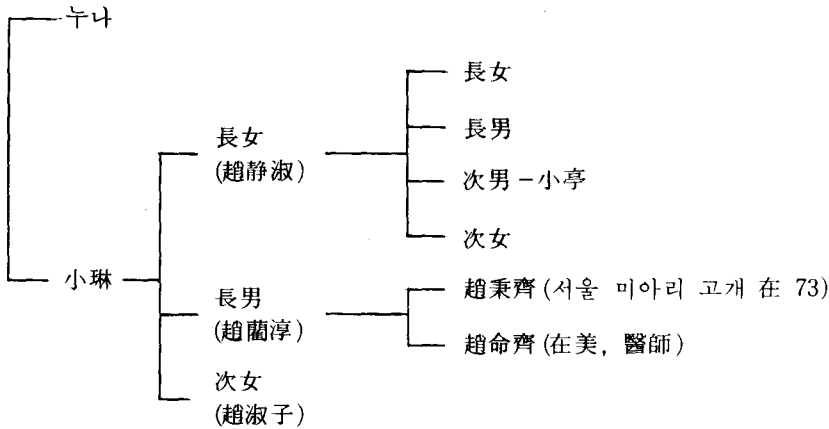
1918년 韓國 最初의 美術團體인 書畫協會가 創立될 때도 小琳은 心田과 더불어 그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 더욱 1919년 10월 26일 書畫協會 初代會長이던 心田 安中植이 別世하자 小琳은 2代會長으로 이 重責을 맡았으나 그 역시 老令으로서 1920년 5월 31일 68歲를 一期로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 3) 李允姬 「小琳 趙錫晉에 關한 研究」, p. 9.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3年.

4) 李慶成 近代韓國美術家論巧 「安中植論」, p. 9.

5) 劉復烈 韓國繪畫大觀 p.921. 參照.

小琳의 外孫子이자 역시 우수한 近代의 畫家인 小亭 卞寬植의 회고담을 토대로 그간의 사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人的事項을 밝혀 낼 수가 있다.



小亭은 回顧하기를 “外祖父님은 太陰人이셔서 꼭 過黙하시고 일일이 말씀은 안 하지만 말 안 들으면 한번쯤 크게 화내시는 性味셨지. 나는 12살에 外祖父宅(當時 松洞)에서 學校에 다니게 됐는데 學校공부보다 그림이 재미있어서 심부름할 때 外祖父가 그림그리시는 걸 은근히 보고 배워서 옷방에서 그대로 그리다가 좋아리도 많이 맞았었어, 하지만 하루는 엄 주익(嚴上宮 오빠)이 와서 當時 以堂을 크게 칭찬하자 내가 뒷마루에 있는 것을 모르시고 外祖父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외손주 녀석이 天才야, 비상하거든 오히려 以堂보다 낫지’ 하셔서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佛敎專門學校(北廟에 있었음) 運動場에 가서 테니스 쳤었어”하고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小亭은 自身이 大部分 外祖父의 畫風 畫法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면서 特히 外祖父가 皴法을 多樣하게 구사하였다고 하고 小亭自身은 여기에 積墨法과 破線法을 더 익혀 獨自의 길을 간다고 하며 小亭이란 號의 小는 小琳에서 그리고 亭은 변춘정에서 따온 것이라 했다.

또한 小亭과 같이 小琳宅에서 공부하던 小琳의 宗孫인 雲田 趙廣瀾(初名 明善, 또한 山水, 人物, 器皿折枝 各體를 모두 잘한 筆致와 自由自在한 技倆을 가진 獨步의 畫人이었으나 中年에 廢人이된 후 作品活動을 못하다가 作故하고 말았다.⁶⁾

III

小琳은 본시 圖畫署員이기에 肖像畫를 그리는 이른바 院體派의 경향이 바탕이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작가적인 體質에서 우러나는 다양한 표현은 山水, 人物, 花鳥, 魚蟹 등 各體에 通達하였고 그 중에도 人物畫와 魚蟹圖가 뛰어났다.

더구나 正統의인 教養을 받은 畫人다음게 詩書畫一致의 境地에 이르렀다.

*6) 趙善美 面談時的 記錄. 1974年

지금 전하여지는 小琳의 代表的인 遺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⁷⁾

〈群蟹圖〉	大簇子 石鎮壽藏	〈群鯉圖〉	扇面 劉復烈藏
〈聲在樹間〉	扇面 金連俊藏	〈釋王寺寫生圖〉	扇面 全鑿弼藏
〈飲中八仙圖〉	鄭武默藏	〈神仙圖〉	元亨默藏
〈青牛出閔圖〉	李秉喆藏	〈人物圖〉	高麗大學校博物館藏
〈隱逸圖〉	卞寬植藏	〈松鶴圖〉	卞寬植藏
		〈翎毛圖〉	洪容珏藏
		〈墨梅圖〉	鄭海東藏
		〈山水圖〉	金昌伯藏
		〈梅林幽居圖〉	吳鳳彬舊藏
		〈器皿折枝圖〉	弘益大學校博物館藏
		〈梅花圖〉	"



山水圖 (1910年代) 小琳 趙錫晉 作

결국 小琳의 藝術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琳田 趙廷奎의 것과 吾園 張承業의 것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킨 이른바 小琳의 것의 總和라고 할 수 있다. 그의 初期에 영향을 준 琳田은 1771년(正祖 15년)生으로 檀園 金弘道の 영향을 받은 작가로서 山水와 魚蟹가 뛰어났다. 따라서 小琳의 作家 形成 以前의 幼年期를 이 작자에게 배움 받은바 있는 관계로 小琳도 魚蟹圖나 山水에 있어서는 琳田의 인 筆法이 다분히 밑바닥에 깔려 있다.

長成하여 그의 作家의 인 방향을 크게 좌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吾園 張承業이다. 吾園은 사람에 따라서는 朝鮮朝後期 3大 畫家⁸⁾라고 일컬을 정도로 독창적인 사람이다. 그는 1843년에 출생하여 畫員이 되었고 호탕한 性品과 꽤기 있는 性格이 시들어져 가는 朝鮮朝後期에 있어서 하나의 獨步의 인 存在였던 것이다. 小琳과의 年令 차이는 불과 10歲인지라 같

은 世代라고 보아질 수도 있으나 藝術序列로 보아서는 한世代 위에 있는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다. 小琳이 吾園에게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은 小琳의 작품이 얼마만큼이나 吾園의 作品에 근사하느냐는 말로도 바꾸어 볼 수 있다. 어느 意味에서는 吾園의 영향이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小琳의 存在가 호미하리만치 그들의 관계는 밀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小琳은 吾園에게 배워서 그의 形式과 畫法을 모방하고 정말 배워야할 作家精神이나 藝術의 獨創의 인 맛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吾園의 亞流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

*7) 李允姬 「小琳 趙錫晉 閔한 研究」 p.33~34. 參照

8) 鄭善欵, 金弘道, 張承業.

이렇게 琳田과 吾園에 바탕을 둔 小琳이 美術史上에 그의 獨自의인 位置를 차지할 據點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小琳作品에 있어서 가장 小琳的 要素는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왕왕 才能만을 앞세우는 작가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지만 눈썰미로서 남의 좋은 점을 흉내내다 보니까 결국은 진정 있어야 할 자기를 잊어버리는 수가 생긴다. 小琳도 吾園 亞流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상실에 빠지고 마는 悲劇的인 作家의 한 사람인 것이다.

그의 藝術에 대한 진정한 연구는 現存하고 있는 모든 작품을 集成하고 더구나 그가 익명으로 그린 陶磁器의 그림 같은 것은 總括한 후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研究의 現단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近代 韓國의 雙璧인 心田과 小琳 중 心田보다 存在가 흥미한 그 理由의 解明에 照明을 비치고 관심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小琳이 韓國 近代 美術史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자리로 하여금 무엇을 후세에 남겨 놓았느냐는 것이다.

결국 韓國 近代 百年의 繪畫는 크게 吾園 張承業을 一代로 心田 安中植, 小琳 趙錫晉을 二代로 靑田 李象範, 以堂 金殷鎬, 毅齊 許百鍊, 心汕 盧壽鉉 등을 三代로 月田 張遇聖, 雲甫 金基稔, 齋堂 裴濂 등을 四代로 그리고 지금 四〇代의 畫家를 五代로 이어왔다.

한 世代를 30년으로 치면 이 五代까지는 분류는 지나치게 세분된 감이 있으나 師弟之間의 關係를 보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선다.

一代는 朝鮮朝末의 代表的인 繪畫作品을 남겨 놓은 吾園 張承業의 畫業으로 설명이 되고 二代인 心田과 小琳은 朝鮮朝와 近代의 교량이라는 위치 때문에 양 세대의 要素를 아울러 갖고 있고 三代의 畫家들에게는 朝鮮朝的인 요소는 희박해지는 대신 그때의 時代 背景인 日本의 植民地의인 殘滓가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대표적 인 예가 이 무렵의 靑田 李象範의 작품이다. 四代의 畫家들은 日帝時代의 三代 畫家에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性格으로 보아서 애매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어느 意味에서는 世紀末의인



梅花圖 (1910年代) 小琳 趙錫晉 作

無性格이 그들의 제작적 背景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五代의 화가들에 와서는 背景이 확 트인 1945년 이후의 일이라 社會的인 與件은 크게 달라지고 感覺的으로도 現代에 도달하고 만다.

이상과 같은 韓國 近代 百年의 透視가 定立된다면 小琳의 位置가 과연 무엇인가는 스스로 明白해졌을 것이다. 歷史에 몸을 맡기고 正統에 歸依하다 보니까 時間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린 또 한 사람의 彷徨하는 近代 藝術家의 原型을 小琳이라는 畫家 속에서 찾는 것은 굳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年 譜

- 1853년(哲宗 4年 癸丑) 黃海道 瓮津郡 興峨面 아미리에서 父親 趙鏞燦과 母 文義 朴氏사이의 五兄弟 중 次男으로 탄생.
- 1869년 畫員으로 高宗皇帝의 御眞을 描寫하며 그 功으로 永春郡守(現忠北 丹陽)로 임명되며 이어 高宗皇帝 및 李王殿下의 御眞圖監으로 正三品에 이름.
- 1881년 新武器의 製造法과 操鍊法을 배우기 위해 淸으로 派遣된 100餘名에 끼어 製圖師로 감.
- 1908년 工業傳習所 촉탁으로 陶磁器에 山水畫를 그리는 작업을 맡음.
- 1911년 尹永基가 주도한 書畫美術會의 창립에 心田 安中植 등과 참여하고 教授함.
- 1913년 書畫美術會의 學生과 先生을 引率하여 德壽宮 石造殿에서 御前揮毫會 개최.
- 1918년 心田 安中植, 春谷 高義東 등과 日帝의 鮮展에 맞서는 民族陣營의 美術團體가 된 書畫協會를 創設함.
- 1919년 書畫協會의 初代 會長이던 心田 安中植이 別世하자 第2代 會長職 맡음.
- 1920년 5월 31일 崇仁洞 自宅에서 68歲를 一期로 別世.

參考文獻

- 劉復烈 韓國繪畫大觀 1969. 서울 文敎院
- 李允姬 「小琳 趙錫晉에 關한 研究」 1973.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 論文
- 金榮胤 韓國書畫人名辭書 1959.
- 李龜烈 畫壇一境 1968. 東洋出版社
- 吳世昌 權域書畫徵 1928.
- 李慶成 韓國近代美術研究 1974. 同和出版公司
- 李慶成 近代韓國美術家論巧 1974. 一志社